



미 증시, 부채한도 불확실성 재확산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23 일(화) 미국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교착상태에 따른 디폴트 우려 재점화, 제조업 PMI 쇼크, 기술적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 (다우 -0.69%, S&P500 -1.12%, 나스닥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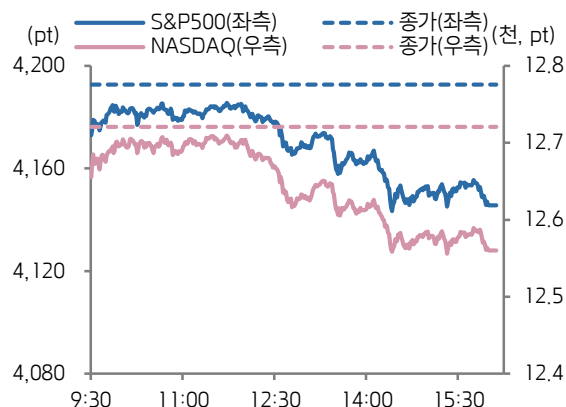
부채한도 협상 관련 세번째 회동은 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 예산 삭감, 부유층대상 세금 신설 등을 두고 교착상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후 성명에서 “우리는 디폴트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초당적 합의를 향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라고 밝혔고 매카시 의장도 협상 후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지만 우리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언급.

백악관이 재무부가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한 6 월 1 일 시한을 앞두고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할 시간을 더 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15 일에는 분기별로 거두는 세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디폴트 시한을 7 월까지 늦추는 게 가능하므로 재무부는 우선 6 월 15 일까지 디폴트를 늦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

미국 5 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는 48.5(예상 50.0, 전월 50.2)로 예상치 하회한 반면, 서비스업 PMI 는 55.1(예상 53.0, 전월 53.6)로 예상치 상회하며 22 년 4 월 이후 최대치. 집계측은 2 분기 중 서비스 부문 생산, 신규 주문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5 월에 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계속 상승했고 5 월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언급. 미국 4 월 신규주택매매는 전월대비 4.1%(예상 -2.6%, 전월 4.0%) 예상치 상회. 로이터 통신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 상황을 이용하려는 구매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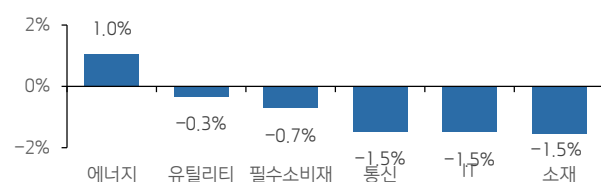
에너지(+1%) 업종만이 강세 보인 가운데, 유틸리티(-0.3%), 필수소비재(-0.7%)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소재(-1.5%), IT(-1.5%), 통신(-1.5%)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애플(-1.52%), 알파벳(-1.99%), 아마존(-0.02%), 메타(-0.64%) 등 주요 시총 상위 기술주 및 엔비디아(-1.57%), 마이크론(-0.33%) 등 반도체 관련주 약세. 주택개량 소매업체인 로우스(+1.72%) 1 분기 매출 및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주택 개량 수요 감소를 예상하면서 올해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개장전 하락, 장중 낙폭 만회하며 반등에 성공.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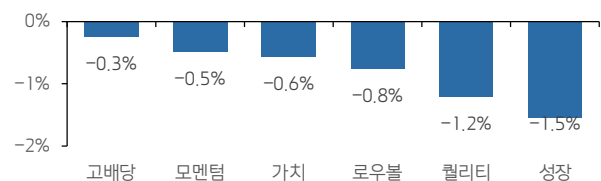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67.55	+0.41%	USD/KRW	1,312.46	-0.45%
코스피 200	337.09	+0.24%	달러 지수	103.52	+0.31%
코스닥	859.16	+0.84%	EUR/USD	1.08	+0.04%
코스닥 150	1,304.70	+1.2%	USD/CNH	7.06	-0.02%
S&P500	4,145.58	-1.12%	USD/JPY	138.56	-0.02%
NASDAQ	12,560.25	-1.26%	채권시장		
다우	33,055.51	-0.69%	국고채 3년	3.380	+6.8bp
VIX	18.53	+7.67%	국고채 10년	3.480	+9.3bp
러셀 2000	1,787.72	-0.43%	미국 국채 2년	4.316	+0.1bp
필라. 반도체	3,177.44	-1.17%	미국 국채 10년	3.692	-2.3bp
다우 운송	13,907.03	-0.24%	미국 국채 30년	3.948	-1.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42.38	-0.99%	WTI	72.91	+1.19%
MSCI 전세계 지수	651.17	-0.96%	브렌트유	77.64	+2.17%
MSCI DM 지수	2,845.71	+0.1%	금	1992.8	-0.15%
MSCI EM 지수	983.27	+0.62%	은	23.47	-1.02%
MSCI 한국 ETF	62.35	-1.2%	구리	364.15	-0.8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5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7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8.1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뉴스플로우 2. 7 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3.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업종 내 순환매 장세 전개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1) 막판 합의, 2) X-date 를 넘긴 채 연방정부 섰다운 기간을 거치면서 합의, 3) 노딜로 인한 디폴트 등 여러 시나리오가 등장 중에 있음. 그 가운데 옐런 재무 장관이 X-date 로 제시한 6 월 1 일 이 가까워짐에 따라, 부채한도 노이즈가 증폭되고 있는 모습.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큰 틀에서는 디폴트가 없을 것이라는데 합의를 본 분위기이지만, 공화당이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예산 지출 축소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공화당 위원들이 X-date 날짜 산정 방식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일 미 증시 하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 이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재무부의 현금잔고가 재차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 미 재무부의 현금계정잔고(TGA)는 지난 2 월말 5,670 억달러 -> 3 월말 1,770 억달러 -> 4 월 중순 1,100 억달러까지 감소하면서 부채한도 불확실성을 증시에 주입시켰음.

이후에 세수 유입으로 4 월말 3,160 억달러까지 증가했으나, 5 월 23 일 현재 630 억달러까지 급감한 상황. 부채한도 증액을 못한다는 전제 하에, 이 추세라면 분기 세수 유입이 되는 6월 15일 이전에 연방정부 최소 보유 금액으로 알려진 300억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 물론 300억달러를 하회하더라도 6월 15일 이후 세수 유입으로 현금잔고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300 억달러라는 상징적인 레벨이 깨졌을 경우 신규 재료를 찾기 좋아하는 뉴스플로우 상에서는 한층 더 부채한도 관련 불안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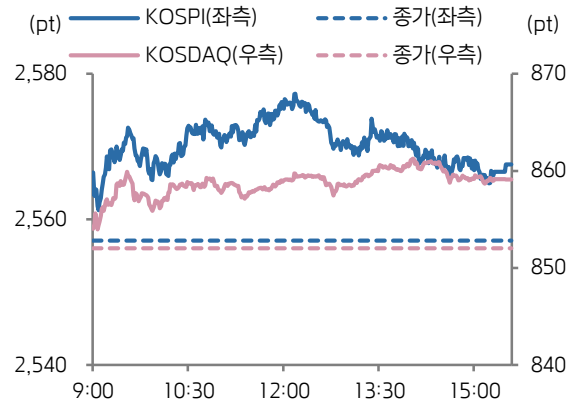
시장은 이를 반영하면서 한때 130bp 를 하회했던 CDS 1 년물 프리미엄은 전일 160bp 근처까지 재급등 했으며, 6 월 1 일 만기물 T-bill 금리는 6%대까지 상승한 모습. 하지만 역사적인 부채한도 사례나 확률 상으로 미루어보아 X-date(6 월 1 일 or 6 월 7~8 일) 이전에 "진통 끝 합의"가 유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월말로 갈수록 부채한도 불확실성은 한층 더 자극적일 수가 있겠지만, 노이즈로 받아 들이면서 주식 포지션 축소가 아니라 변동성을 감내해 나가는 전략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부채한도 불확실성 속 외국인 순매도에도, 미국 테슬라발 호재 및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2차전지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8%).

금일에는 부채한도 협상 불안심리 확산, 미국의 5월 제조업 PMI(48.5, 컨센 50.0) 및 리치몬드 제조업 연은 지수 쇼크(-15.0, 컨센 -8.0) 등 미국발 악재로 인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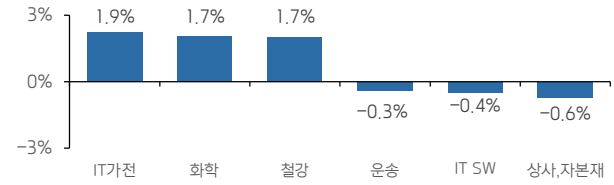
최근 코스피가 7 거래일 연속, 코스닥이 6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미국 증시 약세를 빌미로 국내 증시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 이를 감안 시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약세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2 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 대형 업종 및 종목들간 수급 변화에 따라 주가가 차별화되는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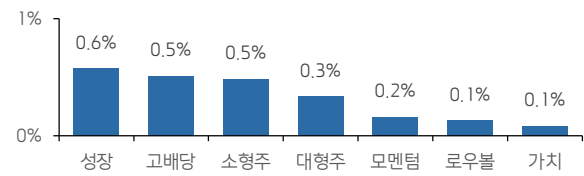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